

제목

최근 중국의 환율 안정화 조치 및 평가

- ◆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위안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①국채매입 중단(1.10일), ② 역외자금 조달 관련 거시건전성 조정계수 상향조정(1.13일), ③ 사상 최대 역외 중앙은행어음 발행(1.15일)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
 - 이번 조치가 환율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향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계획 등을 감안하면 큰 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

[최근 위안화 환율 동향]

- 지난 1.3일 위안화 환율(대미달러 대비)은 7.3위안을 돌파했으며, 23.9월(9.8일 7.3415위안) 이후 최고치를 기록(1.10일 7.3326위안)
 - 지난해 위안화 환율은 연초 7.2위안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8월 이후 美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, 이후 트럼프 당선 등에 따른 미·중 갈등 심화 우려가 커지면서 반등
 - 최근의 위안화 약세는 대내적 요인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, 취임을 앞둔 트럼프 정부의 추가관세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주로 기인

위안화 환율 추이



자료 : WIND

달러지수 및 위안화 환율



자료 : WIND

[환율 안정화 조치]

- 금융당국은 위안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①국채매입 중단(1.10일), ②역외자금 조달 관련 거시건전성 조정계수 상향조정(1.13일), ③사상 최대 역외 중앙은행 어음 발행(1.15일) 등의 조치를 시행*

*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“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환율 오버슈팅 위험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”고 강조(2025년 업무회의, 1.4일)

- ① 국채시장에서의 공급부족을 감안하여 1월부터 공개시장에서 국채매입을 중단하고 향후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한다고 발표

- ② 2023.7월 이후 18개월 만에 “역외자금 조달 관련 거시건전성 조정계수”*를 상향조정(1.5 → 1.75)하여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위안화 절상을 유도

* 인민은행은 2016년 5월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로부터의 역외자금 조달에 대해 일괄 관리. <참고> 「역외자금 조달 거시건전성 조정계수」 참조

- ③ 홍콩에서 600억 위안 규모*의 중앙은행어음(中央銀行票據) 발행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위안화 채권을 제공하며 역외 위안화 유동성을 회수

* 2024년 중 홍콩에서 발행된 중앙은행 어음은 2,750억 위안(12건)이며, 기존에는 100 ~ 200억 위안 수준에서 발행된 데 반해 이번에는 단일 최대 규모인 600억 위안 발행

[평가 및 전망]

- 이번 조치는 최근의 국채 수익률 하락을 억제하고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한편, 미·중 금리차 확대를 막아 위안화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- 향후 위안화 환율은 일시적으로 달러당 7.5위안까지 오를 수 있으나, 인민은행이 다양한 환율안정책*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(화창증권 장위 부소장)

* ①외화예금 기준율(外匯存款準備金率), ②외환리스크 준비금 비율(外匯風險準備金率), ③거시건전성 조정계수(宏觀審慎調節係數), ④외환보유고 등의 조정 및 ⑤통화스왑, ⑥역외중앙은행어음 발행, ⑦창구지도 등을 통해 환율안정을 실현

- 그러나 향후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정책 당국이 큰 폭의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

<참고>

역외자금 조달 거시건전성 조정계수

□ (개요) 역외자금 조달 거시건전성 조정계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역외 자금 조달 행위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

○ 인민은행은 2016.5월 이후, 외환시장 수급과 환율 안정을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역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일괄 관리

□ (방법) 역외자금 조달 위험가중 잔액[㉠]이 상한선[㉡]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

① 역외자금 조달 위험가중 잔액 = ∑위안화·외화 국경간 자금조달 잔액 × 만기 위험 전환계수[㉠] × 유형별 위험 전환계수[㉢] + ∑외화 국경간 자금조달 잔액 × 환율 위험 환산계수[㉣]

㉠만기 위험 전환계수: 역외 자금조달의 상환기간이 1년 초과 시 1, 1년 이하는 1.5

㉢유형별 위험 전환계수: 1을 잠정 적용

㉣환율 위험 환산계수: 0.5

② 역외자금 조달 위험가중 잔액 상한선 = 자본 또는 순자산[㉤] × 역외자금 조달 레버리지비율[㉥] × 역외자금 조달 거시건전성 조정계수[㉦]

㉤자본 또는 순자산: 기업은 순자산, 은행은 핵심자본,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기자본,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운영자본

㉥역외자금 조달 레버리지비율: 기업(2), 비은행 금융기관(1),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(0.8)

㉦역외자금 조달 거시건전성 조정계수: 2025.1.13일부터 1.75

역외자금 조달 거시건전성 조정계수 변동 연혁

조정 날짜	조정계수 변동 내용	원인
2020. 3.12.	1→1.25(전체)	코로나19 발생 후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절하에 대응
2020.12.11.	1.25→1(금융기관)	코로나19 확산 안정 → 생산 복구 → 수출 증가에 따라 위안화 환율이 정상됨에 대한 대응
2021. 1. 7.	1.25→1(일반기업)	
2022.10.25.	1→1.25(전체)	미 연준 금리인상과 반대되는 방향의 완화 정책 실시로 인해 환율 절하 압력이 증대됨에 따른 대응
2023. 7.20.	1.25→1.5(전체)	환율 안정화, 기업 외화유동성 확보 등
2025. 1.13.	1.5→1.75(전체)	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화

자료 : 인민은행